

범죄의 원인을 외곡하는 《문화충돌론》의 반동적본질

김 철 희

《문화충돌론》은 반동적인 사회제도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에 근원을 두고 날이 갈수록 범람하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고있는 서로 다른 문화들의 충돌의 결과로 몰아붙이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지배계급의 온갖 파썸적통치실현을 합리화하고있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계급의 탐욕적인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부르췌아사상은 아무리 위선적인 말로 분칠하여도 자기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132페이지)

오늘날 부르췌아범죄학은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학설로 되고있다.

《문화충돌론》은 일정한 집단의 고유한 문화의 차이점을 각종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외곡하는 비과학적인 리론인 동시에 자본주의사회제도자체가 가지고있는 범죄발생의 사상적 및 사회경제적근원을 은폐하고 범죄를 사회에 대한 지배계급의 반동적통치실현의 합법적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는 리론적근거를 주고있는 반동적인 어용범죄학리론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는 차이를 범죄발생의 근원으로 주장하는 《문화충돌론》은 20세기에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류에게 막대한 참화를 들썩운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조성된 자본주의세계의 사회적혼란과 경제적위기의 결과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들과 특히 이로 하여 양양되고있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통치배들의 파썸적탄압을 정당화할 리론적근거로 제창되었으며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에 맞게 부단히 개악되어온 반동리론이다.

《문화충돌론》은 일정한 집단의 고유한 문화까지 거들면서 온갖 궤변으로 범죄를 외곡하는 추악한 협잡론이며 사회에 대한 파썸적통치실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배들의 극악한 어용리론이다.

《문화충돌론》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반동적정책의 산물인 범죄의 근본원인을 허황하게 외곡하는것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파썸적통치실현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라는데 있다.

부르췌아범죄학이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범죄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범죄의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문제이며 여기서도 범죄의 원인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범죄의 원인이 자본주의사회의 고질적질병인 범죄를 《연구》하는 부르췌아범죄학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사회적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이 세워지게 되기때문이다.

온갖 범죄가 범람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중요한 법률적수단으로 적극 리용하고있는 반동적통치배들은 저들의 이러한 통치방식의 실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수 있는 범죄학리론연구를 적극 조장하고 류포시켜왔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학은 반동통치배들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 그 정책실현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리론적으로 대변하는 중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문화충돌론》역시 계급적대립이 가장 첨예한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적인 문화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끌어냄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발생의 실제적원인을 은폐하고있으며 사회에 대한 파썸적통치실현의 리론적근거를 합리화하고있는 비과학적리론이다.

《문화충돌론》은 우선 범죄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기초하여 황당무제한 주장을 늘어놓고있다.

《문화충돌론》의 첫 제창자인 반동적인 범죄학자 타프트는 사회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문화는 필연적으로 기타의 각종 문화와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범죄행위가 장기간 존재할수 있는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사이의 접촉이나 개인과 사회의 접촉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차이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력설하였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자본주의사회의 문화구조에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적지 않게 존재하는 다민족국가들은 항시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안고 범죄로 시달려야 한다는 결론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통하여 타프트의 주장이 황당한 거짓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현상으로서의 범죄는 맹목적으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 원인이 발현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그것을 낳는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트고 자라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때 다시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수행을 강요하거나 자극하는 사상적 및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범죄를 감행할수 있는 환경과 틈, 계기와 같은 범죄발생의 객관적조건, 범죄감행의 목적이나 동기 등과 같은 범죄발생의 주관적조건들이 조성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충돌론》에서는 범죄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일정한 집단이 가지고있는 문화를 범죄와 인위적으로 련관시키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을 무서운 범죄의 공포속에 시달리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것은 결코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기때문이 아니다. 인류가 창조한 고상한 정신세계를 반영하고있는 문화는 범죄와 인연이 없으며 문화와 범죄의 원인을 련관시키는것은 인위적인 억지공사이다.

《문화충돌론》은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저축으로 범죄의 근원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 만연되는 범죄의 실제적근원을 은폐시키고있다.

사회적현상의 본질에 대한 외곡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을 은폐하고 적극 미화분식하는것은 부르조아리론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특징이다.

반동적인 범죄학자인 토스틴 셸린은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의 차이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충돌이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이론적으로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서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범죄의 발생을 론하였다. 다시말하여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족이나 종족과 같은 서로 다른 사회적집단들이 가지고있는 문화의 차이는 온갖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본원인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는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여러 집단들의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때문에 생긴다는것이다.

여러 민족이나 종족과 같은 사회적집단으로 이루어진 주민구성이 결코 사회에 불안을 주는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될수 없다.

오늘 소수민족을 하대하고 차별하는 인종주의정책이 공공연히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의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반인종주의투쟁과 같은 행위들은 결코 범죄가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들이나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충돌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온갖 범죄를 낳고 조장시키는 반인민적이며 썩어빠진 사회제도 그자체에 있다. 자본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이며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의 사용도 합법화하고있는 반동적인 제도이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 만연된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더욱 조장시키고있으며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고 경악을 자아내는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들을 발생시키는 사상적근원으로 되고있다.

《문화충돌론》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여러 민족과 종족, 집단들이 살며 생활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범죄의 《영원성》을 주장함으로써 형사관계를 통한 지배계급의 파썸적통치실현을 정당화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쪼먹고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부르조아생활양식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 야수성과 야만성, 패륜패덕은 부르조아생활양식의 근본특징이다.

인간의 본성적요구가 무시되고 극도의 개인주의와 약육강식, 패륜패덕이 지배하는 범죄적인 자본주의사회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는것은 반동적인 부르조아리론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문화충돌론》에서는 우선 문화의 충돌을 피할수 없는 사회의 영원한 현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파썸적통치를 합리화하고있다.

반동적인 부르조아범죄학자인 타프트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이러한 문화의 차이로 하여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는 허황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반동적인 범죄학자인 토스런 셸린은 이민범죄를 기본으로 주장하였던 문화충돌의 범죄원인론을 지배계급의 파썸적통치실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체의 문화구조측면에서 더욱 반동화하였다. 이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민사회구조때문에 생기는 문화충돌에 대하여 《제1차문화충돌》이라고 하고 이러한 충돌이 주로 1대이민들속에 발생한다고 주장한 후 《제2차문화충돌》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제2차문화충돌》은 구체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나

타나며 하나는 1대이민의 자식들 즉 2대이민들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과 함께 사회의 문화가 복잡해지는것으로 하여 같은 문화안에서 일어나는 친구문화사이의 격렬한 충돌로서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것이다.

이자의 이론에 따르면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무슨 《제2차문화충돌》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의 범죄는 없어질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사회의 부단한 발전이 낳은 새것과 이전의 낡은것과의 차이까지도 범죄발생의 근원으로 보고있는 《문화충돌론》은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차이 지어 한 가정의 아버지와 자식간의 서로 다른점까지도 범죄의 원인으로 된다는 허황하고 유치한 견해이며 비과학적주장이다. 이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차이가 날로 늘어나는것과 함께 범죄의 증가도 합법칙적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문화충돌론》의 반동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반동적인 《문화충돌론》이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사회의 범죄에 대하여 이처럼 정당화하고있는것은 사회에 대한 파썸적통치를 실현하려는 반동적지배계급의 정치적요구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충돌론》에서는 또한 반동적통치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는 자그마한 현상도 범죄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다.

범죄학자인 셸린은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충돌한 다음 특정한 사람에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문화충돌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자면 특수한 사회적변화의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특수한 사회적현상들이란 지배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는 《전쟁, 사회적변혁, 급진적인 정치운동》등으로서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그 어떤 투쟁도 범죄시하고 철저히 탄압하고있는 반동통치배들의 파썸적통치를 이론적으로 적극 안받침하고있는 《문화충돌론》의 계급적성격과 반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으려는것은 역사의 반동들인 착취계급이 추구하고있는 변함없는 목적이다.

오늘 반동적지배층의 적극적인 비호와 조장밑에 부르조아범죄학계의 《정설》로 되어 사회의 범죄를 심히 외곡하고있는 《문화충돌론》과 같은 이론아닌 《이론》들이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빚어놓은 범죄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창조된 인류의 정신적 및 물질적부의 총체인 문화를 모독하고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범죄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적극 합리화하여 통치배들의 파썸적통치실현을 이론적으로 담보해주고있는 《문화충돌론》을 비롯한 범죄학이론들의 반동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실마리어 《문화충돌론》, 범죄학